

박병동 목사님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저희 농아신학교 졸업식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메데린으로 옮겨 새로운 신입생 환영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2년 반 동안 보고타에서 큰 사고 없이 신학 강의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적 같습니다. 또한 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을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3일(토) 오전 10시에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도 매우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보고타 졸업생들은 각 지방으로 내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농아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업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말에 보고타에서 메데린으로 이전하여
메데린 농아 신학교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수도 보고타의 농아인들보다 글을 잘 읽고 이해하여 놀라웠습니다.
현재 등록된 학생은 35명정도 됩니다. 많이 모일 때는 40명의 학생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반과
야간(오후 6시부터 9시까지)반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학생들을 면접하고 22일부터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신입생들에게 성경 인물과 지도, 구약과 신약 등 성경 기초를 설명하였습니다.

메데린 지역에 살고 있는 농아인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동성애, 이혼, 낙태, 술, 담배 중독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지역에도 복음이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에 한 장소를 빌려 신학교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50 명 정도 참석하였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신입생들을 소개, 환영 만찬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 월 29 일부터는 정식으로 주간, 야간 신학 수업이 시작되었고

월:창세기강해, 화:마태복음강해,수:다니엘강해, 목:사도행전강해, 금:상담학, 교회론 등을 가르치고 있고 계속해서 가르칠 예정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데린의 신학생이 모이면 비자를 서포트 해주시겠다고 한

교회가 있어 5 월 중에 비자를 신청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콜롬비아 농아인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곧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김정철 목사 드림.

보고타농아신학교 졸업식파티 및 졸업식예배









메데린농아신학교 강의



